

부활 제3주일

기도서 P. 286 C해

제1독서(사 도 5, 27-32. 40-41)
제2독서(묵 시 5, 11-14)
복 음(요 한 21, 1-19)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론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나를 따라라

이 순 성 신부

“애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부동산 투기업자들, 히로뽕 밀조자들, 획일지향 지시형 독재구축자들 및 그 어용관계자들, 중직이란 허울을 쓰고 국민을 열렸다 달렸다 하는 행정관료들, 현대판 신숙주라 자위하는 정객들 또 어릿광대처럼 웃기는척 속셈은 엉뚱한 곳을 겨냥하는 알 대부님들과 떡집 주인들, 덧붙여 중국의 미녀 육진 비연 달기처럼 얼굴 값으로 재산 불리는 악덕 재벌들아! 요사이도 뭐 건덕지 큰 것을 잡았느냐 말이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하루 세끼를 여기저기 찾아 헤메는 이들을 바로 같은 울안에 두고 너희는 그대, 저우 두치 헛바닥 고소름할 요양으로, 여섯자짜리 송판 널장에 갇혀 썩어버리면 냄새나진 매 한가지인 그 잘난 오관을 즐겁게 하기 위해 처참한 그들을 우롱하면서까지 돈 한푼치며 꽃방석 한자리를 차지했느냐 말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 감히 상상해 보았다.

돈, 돈, 돈, 명예, 명예, 명예, 권력, 권력, 권력, 기가막히게 좋은 것인줄 안다. 그러나 좋은 약도 과용하면 해가 되듯이 그 좋은 돈, 명예, 권력이 과잉되면 독이 되는 사실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더더구나 그것들이 몇몇 불량잡배에게 물리게 될 때 같은 역사를 사는 다른 인생은 더욱 처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다. 돈, 명예, 권력에 눈이 어두어진 자들은 자기들이 볼 수 없는 진리를 우리마저 보지 못하게 획책한다. 돈이 최고요, 명예가 금상이며, 권력이 첩화라는듯이 아직은 눈 보이는 우리를 유혹, 수탈, 핍박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눈이 뒤집히게 되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병신이 되고 만다고 말이다. 따라서 이왕에 병신이 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짓거리에 동조한다면 우리 역시 성한 사람이라곤 할 수 없으리라.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틀림없이 일깨워 주신다. 고기벌이에만 정신없던 제자들, 그러나 잡은 고기가 주님에 의해 여러사람에게 사용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자고로 돈이나 재물 그리고 명예 또 권력이 만인을 위해 사용될 때 좋은 것임은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은 제대로 보는 눈이 되는 것이다. 이때야말로 주님은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라” 하실 것이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은 진정 “나를 따라라”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생사화복, 부귀명성의 주관자이시다.
(수류 전주교회 주임신부)



告解하는 심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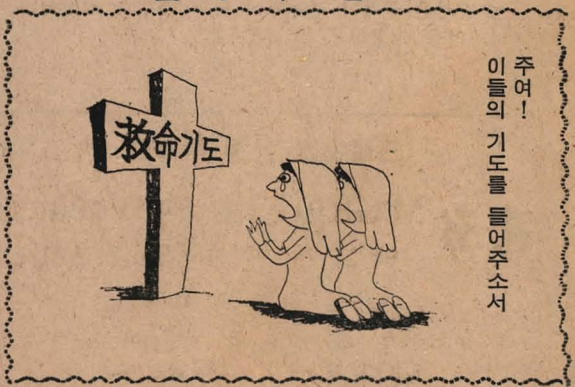
새로운 민주(民主)시대의 장(場)에 접어들자, 스스로의 모습을 밝히는 고백(告白)의 글을 쓰고 자신이 걸머졌던 직책을 벗어던진 교수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감투에 연연한 사이비 지성인들에게 “신부에게 고해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살피어 처신하도록 권유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누구든지, 부정할 웃을 입고 있다면 벗어 던져야 한다. 아니, 그 웃을 깨끗이 빨아서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참다운 고백(告解聖事)이다. 제 잘못을 알아내어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해서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란다. 그 잘못으로 빚어진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들 “잘못을 고백”만으론 끝나는 걸로 알아 “천주교 신자는 죄를 얼마든지 짓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여기고 있다. 신자들까지도...

누가 죄인인가? -진리를 가르쳐야 할 성직자나 교직자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쳤다면, 그가 바로 죄인이다. 전방을 지키는 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를 비우고 계 불일을 보았다면, 그도 바로 죄인이다.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권리와 보수를 주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 죄인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이다 당리당락을 국민의 이익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처신했다면, 그도 바로 죄인이다.

아직도 새시대의 요구에 눈과 귀를 막는 자가 있어서 문제이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보상까지 하라. 보상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불완전한 것이다. 역사의 심판은 하느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숲 정이 산책



□ 제 2 차



베델성서 연구반 모집

본 교구 가톨릭 센터에서는 성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제 2차 「베델성서」 연구반을 모집합니다.

이 성서 연구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수료할 때까지 2년동안 성서의 67권을 공부 하게 될 것이며 각 책마다 지닌 주요 강조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서 전체를 공부하게 될뿐 아니라 가르치는 법, 전달하는 법, 응용의 원리, 배우는 법 등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를 좀더 깊이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가톨릭 센터 사무실에 문의,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센터 관장 김 봉 희 신부

□ 베델성서 연구반 모집 요강 ~~~~~

모집인원 : 40명

원서접수 마감 : 1980년 4월 28일까지

면 접 일 : 4월 29~30일 (필히 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개 강 식 : 5월 6일 오후 7시30분, 센터 강당

준 비 : 본인이 기록한 소정의 원서와 증명사진 2매

—원서는 가톨릭센터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음

※ 이번 성서연구 강사는 김준호 신부님(교구청 교육홍보실장)이 담당하십니다.

〈참 고 사 항〉

—수강생은 오는 2년동안 매주 100분씩 강사 신부님과 함께 공부시간(9개월)을 가져야 됩니다.

—수강생은 매주 숙제준비를 위해 8~10시간 정도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수강생은 매주 약 15개의 성서개념들을 외워야 합니다.

—수강생은 공부가 진행됨에 따라 시험을 치루어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4·19 20주년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韓 相 甲

4·19 학생혁명(의거)이 있은지 만 20년, 사회 통념상 갓난아이가 성년(成年)으로 대접받는 기간이다. 그간 4·19 정신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이어져 내려 왔는가?

□ 4·19 정신은 살았는가?

4·19는 민족의지의 발로요, 뜨거운 나라사랑의 꿈틀 거림이다. 당시의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4·19 의거는 이 나라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요, 이에 대한 철저한 교정없이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반회할 길이 없는」 적시타의 몸부림이었다. 이 정신은 20년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오늘에도 또 내일에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4·19 정신은 한마디로 민주(民主) 정신이다. 민주라 함은 우리 모두가 구경꾼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달로하는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방관자 내지는 종처럼 지내왔는가? 오라면 오고 가라하면 갈 것이 아니라, 오고 갈 필요가 있을 때에 움직여야 함에도 꼭꼭각시처럼 살았는가?

이제 인형극은 그만 두자.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자. 이것이 4·19 정신이다.

□ 부끄러운 역사는 되풀이 말자.

울바른 소리에 입을 틀어막고, 그 소리에 귀를 막는 일은 독재자나 하는 일이다. 옛부터 지금까지, 아니 역사가 계속되는 그날까지 「독재자의 역사와 말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왜 그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가? 왜 그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가? 양심의 보루인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게 된 엄연한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교수와 성직자의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는 차마 믿고 싶지도 않은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가?

다시 “좋은 쓰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은 아니야!”라는 잔인하고 물상식한 말은 그만두자.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는 정말로 정말로 두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 새롭게 살자

새헌법의 전문(前文)에 4·19 정신을 넣을 것인가로 걱정하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이래야 하는가? 당연의 도를 넘어서는 일이 왜 논란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은 새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때이다.

우리 모두 새마음으로 시작하자. 국민의 지도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직자와 교수는 진리만을 가르쳐라. 다시는 눈을 다른데로 돌리지 말고 기업가는 종업원들을 정말로 가축처럼 대접하라. 돈버는 기계처럼 여기지 말고, 백성들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 길이 4·19 정신을 오늘에 살리는 길이다.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번

주 최 남 수(아블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유우리안나

□ 김진소 신부님, 퇴원

지난 2월 10일 연탄가스 사고로 부산 파티마 병원에 입원중이셨던 김진소 신부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전북대 입구에 있는 가톨릭 학생회관에서 요양중이시지만 아직은 불편하신 몸. 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하도록 합니다.

□ 성직자 친목 테니스대회 열려...

요즘 신부님들께서 테니스 붐이 한창... 사순절 동안의 수고로우심을 잊고 부활이나 하시는 듯, 건강 건재하심을 과시, 서로의 친목을 위해 제1지구 신부님들이 주최해서 모인 소 운동회였다. 특별히 주교님께서 배려하신 트로피를 놓고 힘껏 내려치는 불은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열이 났다.

서로를 모여 하루를 즐기시는 신부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은 참으로 화기애애한 모습들이었다.

주교님이라는 명칭을 교주님이라 잘못 쓰여진 트로피를 다시 반납 정정하는 웃음도... "신부님들요, 사목을 위해서 항상 그렇듯 건강들 하소서..."

□ MBC-TV 「개항80년사」에 천주교회편 방영

오는 4월 20일(일요일) 오전 8시 35분부터 20분간 방영되는 MBC-TV프로 「개항80년사」에 천주교회편으로 우리교구의 역사와 오늘의 발전된 모습이 대담과 함께 방영된다.

교구역사에 대한 김환철 부주교님, 조성호 평협회장님과와의 대담과 함께 교구내의 성지 및 발전된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는 이 시간을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구 주최 성소자 모임 및 행사

- 일 시 : 4월 27일(성소주일) 오후 2~5시
 - 장 소 : 가톨릭센터 강당, 회의실
 - 참가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 행사개요 : 공동미사, 특강과 성직, 수도자들과의 좌담회 및 구룹별 상담
 - 행사지도 : 교구 사무처 신부, 각 수도회 대표
- 성소자 발굴을 위해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회 사순절 모금 현황 (1980년 4월 15일 현재)

고 창(30,000원),	원 평(22,410원),	신태인(201,430원),
정 읍(80,000원),	창인동(336,730원),	복 자(128,215원),
센 타(13,700원),	김 제(34,500원),	삼 례(68,760원),

요심이 (351) 김병오



□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이 시계걸 열)
 전화 ⑥ 621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 보 당 금 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⑥0369)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
 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제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직원채용 공고

인 원 : 남자 0명
 자 격 : 병역필 면제 고졸이상자
 부기 주산 3급이상 자격
 증 소지자

제출서류 : 이력서, 신원증명서각1통
 자격증 사본 1통

시험과목 : 일반상식, 실기, 면접

접수마감 : 80. 5. 2. 오후 6시

시험일시 : 80. 5. 3. 오후 6시

접 수 처 : 전주 파티마신협 사무실
 (② 2519)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람

전주 파티마 신용협동조합

이 사 장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레지오 마리에 단장 피정...1차-4월 22일<화> 오후 2시~23일<수>, 가톨릭 센터에서
2차-4월 28일<월>~29일<화> ※ 1시30분에 접수~2시 정각에 시작, 참가비는 지난 피정시와 같음
① 대상-각 브레시디움 단장 및 간부 1명, 신실 브레시디움은 2명까지 참석할 수 있음.
② 준비물-복주, 공동체 성가집, 필기구, 세면도구
③ 각 본당에서는 1·2차로 나누어 참석시켜 주세요
 2. 성모 기사회 모임...5월 3일 오후 2시, 카리마 성당에서
※ 오기순 신부님의 특별강론 있습니다
 3. 군옥지구 울뜨레아...4월 27일 오후 3시, 팔마성당에서
 4. 20일 여자 전도일 연기
- 각 본당 중·고 학생회 실태 파악을 위하여 교구 연합회에서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다음 본당에서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빠진 본당은 25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김제, 창인동, 주현동, 용안, 서학동, 덕진, 진안, 장계, 무주, 남원, 함열, 황등, 임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태
보좌 신부 박성정
사도 회장 김현수

1. 성모회: 공식미사 후(강당)
 2. 여성 울뜨레아: 21일 오전 11시(꾸리아 단장매)
 3. 중·고학생회 소풍: 학생미사 후, 장소-구이저수지
 4. 전미사: 매주<목> 저녁미사
제회원 많이 참석하세요
 5. 교무금은 월별로 납입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12,06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중
보좌 신부 나박
사도 회장 원열근

1. 제 4 차 성령세미나: 21일<월>~26일<토>까지
매일 오후 2시~4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성서강의: 매주<월·화>-저녁 8시~9시까지
당신은 성서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보다 더 깊은 성서의 뜻을 알아 봅시다
 3.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룯가와 사무엘 상 전체
 4. 신음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을 가져오세요
아직 저금통을 가져오지 않은 분 속히 가져오세요
 6. 학생회 월례회: 19일<토> 학생미사 후
학생성가대 조직(중1~고2까지의 학생) 희망자는 사
무실에 접수하세요
 7.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1,86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오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모회: 미사후 성당에서
 2. 주일학교 자모회 구성: 어머니들 모두 참여합시다
교리-오후 3시, 미사-4시(어린이 생활기록부 작성
에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3. 약속하신 숭정이성당 신축기금 납부해 주세요
 4. 사제양성 저금통 오늘까지 납부 바랍니다
250개 중 현재 봉헌된 저금통 50개, 나머지 200개 빨
리 봉헌해 주세요
 5. 금주 신자들의 기도는 각 단계별로
(진복회, 부녀회, J.O.C, 반석회)
성인복사-소완영·한인수, 해설-전종근
 6. 우리 모두 10/1조 봉헌에 정성을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76,98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미사후
 2. 사제양성 저금통 빨리 내주세요
(반회장님은 방문하셔서 거두어 주십시오)
 3. 숭정이성당 신축기금 속히 내주세요
 4.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분은 빨리 보셔야요?
(판공성사 시한지 금주내로 내주세요)
 5. 학생회 월례회: 오늘 학생미사 후
 6. 축! 결혼: 20일 12시(복자성당)
신랑-김길수, 신부-조정남
27일 12시(복자성당) 신랑-김병호, 신부-김선배
5월4일 12시(복자성당) 신랑-김중대, 신부-이명숙
- 지난주 봉헌금: 262,56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성가 신음조합 상무 이취임
이임: 오상팔 전상무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취임: 김재열(전 사무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2. 합동 성가연습: 공식미사 전 10분간 성가연습 있음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회의실)
 4. 어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소주일 행사(다음주일): 중·고등학생 광주 대전
신학대학 방문
 6. 쉼지도자 모임: 오늘(20일) 오후 2시(사제관)
 7. 예비신자 교리시간: 다음주일부터 있음
부녀자 교리-공식미사 후(수녀님)
지성인 교리-매주 금요일 저녁 8시(본당신부)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박형석·김태수
신자들의 기도-한형수·조동근
- 지난주 봉헌금: 151,945원 교무금: 29,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다음주일까지 내주세요
 2. 중·고학생 주일 공식미사에 나오지 마시고 토요일
저녁 7시30분 학생미사에 나와 주세요
 3.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매주 화·수요일 오후 8시
 4. 신축기금 내주신 분: 성모회원 일동(20만원), 중앙
본당 신입액중(93,500원), 덕진본당 신입액중 남정
희(3천원), 복자본당 신입액중 김관주(1만원), 중앙
신자 현대사장 김낙준(5만원)
- 지난주 봉헌금: 187,14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영
보좌 신부 김기중
사도 회장 유석중

1. 5월 8~9일 광주피정: 어머니성가대, 성가정회원
(회원이 아닌분중 희망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람)
 2. 글로리아 성가대: 매주 목·금요일 저녁미사후 회합
장소-사제관 2층
 3. 교미시움: 오후 1시30분
 4. 예비자 교리안내: 중·고생-매주 <토> 오후3시30분
젊은이-매주 수·목요일 오후 8시
일반-매주 일요일 10시미사 후
 5. 중·고학생 임원회: 26일 5시미사 후
-각 지도자·회장·총무는 빠짐없이 참석 바람
 6. 교무금 납부는 월납제이니 매월 내주세요
 7.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는 중전대로
저녁미사-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376,451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유아세례: 27일 오후 3시미사 후(사무실에 접수)
 2. 성모회: 23일
 3.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 미사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 가정방문: 22일
 5. 레지오 회합 신실: 단장-김화자
성도님 공경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80,380원 어린이헌금: 2,770원
교무금: 132,000원